

종합·해설

새누리 비박 3인 복귀... 경선 정상화

공천현금 진상조사 특위 구성...7인 연석회의서 확정

비리 확인땀 황 대표가 책임...박근혜 “국민께 송구”

4·11 총선 공천현금 파문과 관련해 새누리당 대선 경선 보이콧을 선언한 비박(非박·비박근혜) 주자 3인은 6일부터 남은 경선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황우여 대표와 김수환 경선관리위원장,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경선주자 5인은 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7인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태호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3인은 경선에 다시 합류기로 해 공천현금 파문을 계기로 파행을 겪은 새누리당의 경선일정이 정상화된다.

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후보자 5인은 당에 대한 애정과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국민과의 약속대로 경선 일정을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연석회의에선 공천현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황 대표가 책임을 진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는 검찰수사를 통해 총선 당시 공천위원을 지낸 현기환 전 의원이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공천현금을 받을 일이 확인될 경우 황 대표가 사퇴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와 경선주자들은 아울러 공

천현금 파문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각 후보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진상조사위를 구성,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비박 중 유일하게 경선 완주를 선언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친박 인사가 연루된 이번 공천비리 확인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후보직 사퇴를 공식 촉구하고 이에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태호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가나다순) 등 나머지 비박 주자 3인이 적극 동조하고 나서 파장이 일었다. 비박 3인은 황우여 대표의 대표직 즉각 사퇴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상담동 누리꿈스퀘어 국회의회실에서 열린 ‘20대 정책 토론회’와 함께 ‘여 함께’에 참석한 자리에서 4·11 총선 공천현금 의혹과 관련,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공천현금 문제를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한점 부끄럼없이 처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 여부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공천현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새누리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현금 의혹이 촉발한 경선 파행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7인 연석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새누리, 현영희·현기환 탈당 권유

대선 이색 홍보 활동

선관위, 목포 바다수영대회서

4·11총선 공천현금 의혹이 새누리당의 12월 대선 가도에 적색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당이 의혹에 연루된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에 탈당권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파문이 조기에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현 의원의 수행비서 출신인 정모씨가 선관위에 제보한 내용은 과거 한 나라당 시절의 차떼기 정당 이미지를 고스란히 되살리면서 강도높은 해신에 주력해온 새누리당을 다시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

현재 정씨는 “현영희 의원이 3억원을 홍준표 전 대표의 측근인 조모씨

에게 전달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 전 의원은 “정씨의 제보는 모두 거짓말”이라며 “검찰 조사를 통해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며 탈당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당 지도부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정씨가 “현영희 의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지역 여권인사 5명에게도 300만~5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가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목포에서 열린 바다수영대회에서 이색 홍보 활동을 펼쳤다.

전남도 선관위는 5일 목포시 유달유원지에서 실시된 전국바다수영대회에서 12월 19일 실시될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날 전국에서 800여명의 수영 동호인이 모인 가운데 선관위 관계자들은 차기 대선에서 처음 도입될 선상투표제도 및 재외선거제도를 소개하고 투표 독려 활동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최고위원 2명 선출



이용득 최고

정하나 최고

민주통합당은 지난 3일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장하나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이 최고위원은 1986년 한국상업은행 노조위원장을 맡은 이후 노동운동에 투신했으며, 장 최고위원은 4·11 총선에서 청년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 대선주자 경선캠프 선대본부 누가 활동하나

문재인-우윤근·장병완·정동채

손학규-홍재형·이낙연·김동철

김두관-천정배·김영록·신정훈

정세균-김성곤·강기정·임내현

박준영-농어민·서민 참여 ‘의병선대본’ 구성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이 궤도에 오르면서 경선을 진두지휘할 캠프별 선거대책본부의 진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캠프=문재인 캠프는 5일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인선 결과를 발표한다. 공동선거대책본부장에는 전남의 우윤근 의원(광양·구례)과 노영민, 이상민 의원이, 직능총괄본부장은 홍영표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복희 의원이 맡는다. 여기에 경제정책본부장에는 광주의 장병완 의원(남구), 특보 단장에는 정동채 전 문화부장관이 임명됐다. 대변인은 도종환, 진선미 의원이 공동으로 맡게 됐으며 상황실장에는 김윤덕 의원이, 비서실장은 윤후덕 의원이 맡는다.

◇손학규 캠프=손학규 캠프는 금주 선대본 인선을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소속 의원들의 참여 여부가 관심사다. 홍재형 전 국회의부의장

이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총괄 본부장에는 전남의 이낙연 의원(영광·함평·장성·담양)과 조정식, 신학용 의원이 공동으로 맡을 전망이다.

전략본부장에는 김영춘 전 의원, 홍보위원장은 장세환 전 의원, 대변인은 김유정 전 의원, 비서실장은 최원식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손 캠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광주의 김동철 의원(광산 갑)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김두관 캠프=캠프 상임고문으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내정됐고, 상임경선대책위원장은 전남 출신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과 원혜영 의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공동경선대책위원장은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와 이강철 노무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조성우 전 민화협 상임의장이 내정됐다. 공동경선대책본부장은 이호웅 전 의원과 신정훈 전 나주시장

이 맡기로 했다.

전략본부장은 민병두 의원, 조직위원장은 안민석 의원이 내정됐다. 비서실장은 김영록 의원이, 대변인은 전현희 전 의원과 김관영 의원의 공동 체제다.

◇정세균 캠프=정세균 캠프는 선거대책위원장에 김진표 이미경 의원을 내정했다. 전발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은 가운데 전략본부장에 최재성 의원, 조직본부장은 김영주, 안구백 의원이 맡는다.

전남의 김성곤 의원(여수 갑)이 특보단장, 법률자문본부장은 광주의 임내현 의원(북구 을)이 내정됐으며 최고위원인 강기정 의원(북갑)도 측면 지원에 나선다.

정책본부장에는 김성주 의원, 비서실장에 박민수 의원, 대변인으로는 이원욱 의원이 내정됐다.

◇박준영 캠프=후발 주자인 박준영 후보는 이번 주 초반에 선대본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특히, 조직 및 자금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후보 캠프에서는 ‘의병 선대본’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인 등 명망가들의 참여를 최소화하는 한편, 농어민과 서민, 중산층 등을 대표할 수 인사들을 대거 선대본에 참여시켜 바닥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정책성을 상징할 수 있는 일반 당원들도 선대본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종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대선주자 폭염에도 ‘표심잡기’

각 지역 방문·종교계 인사 등 만나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4~5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 지역을 방문하거나 종교계 인사와 만나며 표심잡기에 전력했다.

박준영 후보는 5일 오전까지 첫 경선지역인 제주에서 보냈다. 우근민 제주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을 들었으며 이어 두 번째 경선지역인 울산으로 건너가 울산시장 당직자, 경남 향우회원 등과 간담회를 차례로 열어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당직자 간담회에선 “정통 민주정당인 민주당의 당원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날 선거대책본부 인선 결과를 공개하고 본경선에

임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이와 함께 새로 발간한 문 후보의 저서 ‘사랑이 먼저다’를 홍보하며 고공전에 주력했다.

문 후보의 대표 슬로건을 제목으로 한 이 책에는 그의 정책 비전에 담겨 있다. 문 후보는 금주 일정에 대비하며 외부 일정을 최소화한 채 인선 마무리와 정책 구상 등에 몰두했다고 밝혔다.

손학규 후보는 전남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에서 900번째로 열린 ‘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생명평화 미사’에 참석한 뒤 이날에는 인천을 공략했다.

그는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저서

‘저녁이 있는 삶-손학규의 민생경제론’ 북콘서트를 열었다. 북콘서트를 연 것은 서울, 광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두관 후보는 전남 강진도에 이어 이날에는 종일 전북 지역 표심을 공략했다. 오전에는 전북 익산의 원불교 중앙 총부에서 원불교 최고 지도자인 경산 종법사를 예방해 불교계 표심을 두드렸다.

정세균 후보는 이날 남서울가스충전소에서 택시기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택시요금 현실화 등 건의사항을 들었다. 오후에는 종로구 경운동의 수운화관에서 임운길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데 이어 천도교 대교당에서 특강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가 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12년 제9기)

- 개강일시 : 2012. 9. 7(금) 기초A반 9:30, 기초B반 19:00
심화A반 9:30, 심화B반 19: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2. 7. 16(월) ~ 2012. 8. 24(금)
- 수업기간 : 2012. 9. 7(금) ~ 2012. 12. 21(금) (총 90시간)
-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 A반, B반 각 30명
심화반 : A반, B반 (진급생과 편입생 약간명)
※ 기초반 수료 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토요일
A반 : 금, 토 오전 09:30~12:30
B반 : 금 야간 19:00~22:00 토 오후 14:00~17:00

■ 수료 후 특전

-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2단계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①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토, 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 (062) 530-3873~3876
- 담당교수 :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대출금리:연5.5%~ 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예 시 :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 입니다.

리모델링전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부채현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씨티은행	40,0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씨티은행	50,000,000원
상생카드론	9,0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더불어저축	8,000,000원	솔로몬 저축	15,000,000원
SC저축은행	8,000,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1년이자비용	36,035,000원

부채 리모델링 전 연간 이자비용이 3,600만원이었으나 리모델링 후 연간 이자비용이 1,445만원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본 사례입니다 부채리모델링에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경매투자

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 특수물건과 NPL 부실채권만 취급
→ 교육비 / 임차활동비등 회비있음
→ 수료중 단독 / 공동투자 가능
→ 수료후 평생 무료상담 혜택

투자자모집(이사대우)

1. 자본금 5억원이상 가지신분
2. 경매 낙찰물건에 투자하실 분
3. 가등기 / 근저당으로 법적보장
4. 개인사무실 / 활동비등 제공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